영산강 르네상스

〈3부〉 역사와 문화의 강

❷ 문화콘텐츠 발원지 만들자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영산강 유역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전통과 문화·역사자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각각의 유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및 수변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4대 강을 살려 지역별 문화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펼쳐보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에 따라 고대부터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영산강이 앞으로 전남의 문화 르네상스 발원지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영산강에 대한 무분별한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앞서 유역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사전 학술조사와 연구와 이뤄진 뒤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남도,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계획**=전남도는 이번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영산강 유역에 5개 테마별로 관광 개발 사업을 세워놓고 있다.

남도 땅 136㎞를 가로질러 흐르다 하구둑에 물길이 막혀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영산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수질 개선과 남도의 문화콘텐츠 발원지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역사복원·유적발굴로 '이야기가 넘치는 江' 가꾸자

전남도 5개 테마별 사업 100건 추진

지역 성장동력 연계 문화관광 축으로

도는 총 4조5천1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라수영 발굴 등 신규사업 69건과 현재 진행중인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특정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31건의 계속사업 등 총 100건의 사업을 추진중이다.

우선 영산강 유역의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역사문화의 흐름을 따라 지역 특성이 강한 유·무형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는 '영산강 고대문화 르네상스'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영암군 서호면 장천리 선사주거지 확대정비 사업과 ▲나주 반남고분 역사공원 조성 ▲해남 전라우수영성지 복원사업 ▲전라수영 발굴 및 사포 나루터 복원 등이 있다.

두 번째로는 영산강 철새 생태공원 조성, 영암 삼호 생태 습지조성, 황룡강 생태·문화 체험공원 조성 등 자연과 사람,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저 탄소 녹색성장 생태관광'사업을 계획중이다.

이밖에 영산강 고대 실크로드 복원 사업과 강을 따라가는 옛 한양 길 복원, 자전거도로 개설, 뱃길 운항과 영산강 유역에 명촌, 명인, 명소 조성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하천 수상 및 수변을 활용한 다양한 친수레저 및 레저스포츠 등의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 개발도 보탰다.

◇**각종 무형 문화재도 발굴해야**=영산강은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집단을 이루고 살아온 만큼 강 유역에서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재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나경수 전남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프랑스 로렐라이 언덕이 세계인들이 찾는 명소가 된 것은 '스토리' 때문"이라며 "영산강 유역 곳곳에도 아름다운 전설이 많은 만큼 영산강도 문화적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이에 따라 문화자원의 확보를 위한 문화원형의 철저한 조사와 발굴을 통해 영산강 유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장보고와 이순신 장군 등 해양 영웅의 탄생과 사물놀이 패 등은 이미 호남에서 성공한 문화콘텐츠 사례"라며 "고싸움은 군대의 훈련 콘텐츠로, 강강술래는 건강 및 다이어트를 위한 복지 콘텐츠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소장도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역사 복원과 유적 발굴의 호기이며, 이는 곧 문화관광자원 확보와 직결된다"면서 "영산강 준설에 앞서 유적들을 발굴, 역사적 사실과 함께 그 기원을 밝힌 후 문화관광자원으로 포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연계**=영산강이 남도의 젖줄인 만큼 영산강 유역의 인접지역에 있는 지역의 성장동력 사업과 연계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나주 혁신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과 영산강 유역의 각 지역 축제와도 연계한 전남의 문화관광개발 축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낙후돼 있는 내륙지역에 새로운 문화 관광권 조성을 통해 내륙형 문화관광을 만들어 현재 추진중인 서남해안 문화관광과의 연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 주요 프로젝트와 연계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 발전시켜 나갈 경우 남도의 문화 다양성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최권일·강필상기자 cki@kwangju.co.kr

■특 별 기 고 최성락 목포대 역사문화학부 교수·박물관장

영산강 문화콘텐츠 개발로 새 부가가치 창출해야

먼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수질 개선과 더불어 물의 효율적 관리, 친자연적인 생태환경의 복원, 그리고 문화자원의 개발 등이 있다. 영산강은 약 10만 년 전 구석기시대부터 육상교통이 발달되기 전까지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 왔다. 따라서 영산강을 살린다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토목공사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영산강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문화자원, 즉 문화컨텐츠를 찾아내고, 이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영산강을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과 직결되는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산강과 관련된 문화컨텐츠를 어떻게 개발하여야 할 것인가?

문화컨텐츠는 크게 유형의 문화컨텐츠와 무형의 문화컨텐츠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유형의 문화컨텐츠로는 수많은 유형문화재가 대표적이다. 유형문화재에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문화유적을 비롯하여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 사용하였던 모든 도구, 비석, 건축물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유형문화재는 학술조사를 통해 역사문화적 의미가 찾아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영산강유역의 아파트형 고분(복암리 3호분 등)은 우리나라 무덤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것으로 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고, 전방후원형 고분은 일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또 땅 속에 남아있는 매장문화재의 경우, 토목공사에 앞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다. 문화재청은 사업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인 금년 상반기에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4대강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사전에 문화유적을 파악하고, 보존한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보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인 것이다.

그러나 일부 재야 단체에서는 문화재청이 시행한 사전 지표조사가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수많은 문화유적이 분포하는 4대강 유역에 대한 조사를 짧은 시간에 조급히 실시하였고, 수중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지만 땅 속에 남아있는 문화컨텐츠를 찾고자 하는 발굴조사는 꼭 필요한 작업인 것이다.

한편, 무형의 문화컨텐츠에는 사람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생활문화가 포함된다. 즉 역사적 사건과 인물, 구비전승, 민속놀이, 의례 등이 있다. 이 역시 학술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자료의 분석과 연구를 통해 그 원형을 찾아보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화컨텐츠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현재적 가치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문화컨텐츠의 개발은 문화유적의 경우에 유적의 정비, 박물관과 전시관의 건립 등을 통해 교육자원이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무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형태, 즉 스토리 테일링과 문화상품의 개발이나 지역축제 등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 영산강 관련 문화컨텐츠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되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때 문화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